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현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월 24일 화요일 (음 12월 27일) 제173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공직사회 흐리는 '미꾸라지' 잡는다

### 도, 공직기강 확립·컨설팅 감사 등 4대 프로젝트 설정 청렴전북 실현 매진

전북도는 올해 감사핵심 키워드로 공직기강 확립, 청렴문화 정착, 적극 행정 선도, 컨설팅 감사 등 4대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 전북을 실현하는데 매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대선을 앞둔 만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 공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례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공심(公心)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올해를 공직기강 확립 원년의 해로 정해 음주운전 근절, 성범죄 없는 전북도를 만드는 데 본격 착수

한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를 목표로 전 직원이 동참한 '음주운전 근절 실천서약' 및 '음주운전 추방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관련 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공직자 음주운전은 순간의 방심으로 신분상 징계처분과 보수·승진제한, 민·형사상 벌금 등 이중적 불이익과 함께 도민의 지탄 대상이 됨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북도 명예와 도민들의 신뢰가 직결되는 공

공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리의 경우 경찰 조사개시 통보에서 검찰의 구약식 처분통보, 징계의결 요구 등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개선해 경찰통보 즉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1개월 내에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범죄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여성청소년 부서와 긴밀한 공조체제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같이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무교육 미이수자에게 패널티 부여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무기강 해이, 불공정한 관행과 민생비리를 뿌리 뽑고 공직자

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명절, 선거철, 등 취약시기에 맞춰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집중감찰을 실시함은 물론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조기 대선이 예상됨에 따라 정치권 줄서기 등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지불식간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난해 총선 시 13명이 주의 등의 처분 받은 사례 등 공무원 선거법위반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노력해 쌓아올린 공직신뢰가 지난해 일부 공직자의 음주운전 및 성추문 관련 사건으로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고 도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으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헌혈로 따뜻한 사랑 전하세요"

### 전주시 직원 헌혈운동 동참 내달 1일까지 3차례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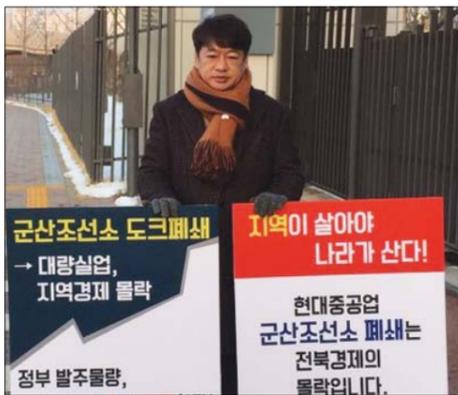
전주시 직원들이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은 동절기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전주시 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한다.

전체 헌혈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동절기를 맞아 진행되는 이번 사랑의 헌혈운동은 부족한 혈액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23일 전주시청을 시작으로 24일 덕진구청, 2월 1일 완산구청에서 각각 진행된다.

보건소에 따르면 헌혈을 원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헌혈을 위해 전날 과음이나 과로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전염성질환 및 감염 보균자 또는 병원 치료 중에 있거나 치료용 약물 복용자는 헌혈에 참여할 수 없는 만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한 후 참여해야 한다.

/김영석 기자



"군산조선소 정상 가동하라"



전북도의회 국민당 최인정 의원(왼쪽)과 양용호 의원(오른쪽)은 23일 오전 세중시 산업전시지원부 앞에서 '정부는 군산조선소 경제파급 효과를 고려하고 도크를 존치시키기 위해 정부 발주 물량을 우선 배정해달라'며 1인 시위를 펼쳤다. <관련기사 3면>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정부-정치권이 대안 제시해야"

### 전북상협, 대책 촉구

전주, 군산, 익산, 전북서남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상협은 23일 '최소한의 수주물량 배정으로 군산조선소를 유지해 달라는 지역의 요구를 묵살하고 현대중

공업이 군산조선소의 6월 가동 중단을 공식화한데 대해 200만 전북도민과 지역 상공인 모두는 울분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상공인들은 "그동안 우리 전북도와 지자체를 비롯한 상공인들은 전북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군산조선소의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전북도민의 염원을 짓밟고 가동중단 방침을

밝힌 것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상협 이선홍 회장은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경제논리에 따라 군산조선소의 가동을 중단하려고 하는 현대중공업을 설득하고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재용 기자

고창출신 유학자 오익창의 유산

## 전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 '사호집'·'익사원종공신록권' 등 2권

고창군 아산면에 위치한 사호 오익창의 사당인 죽산사(竹山祠)에 보관 중인 '사호집(沙湖集)'과 '오익창 익사원종공신록권(吳益昌 翼社原功巨錄券)'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42호와 제243호로 각각 지정됐다.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사호집'이 정유재란 때 명량대첩(1597) 관련 새로운 귀중한 자료를 담고 있어 올해가 명량대첩의 칠주갑(七周甲)·60갑자가 7년 반복된 420년을 맞는 해로, 문화재 지정의 의미가 더하다고 23일 전했다.

'사호집'은 오익창의 문집으로 그의 후손 오성열의 주도로 1773년에 3권 2책의 목활자로 간행됐다.

회귀본으로서의 판본적 의미와 임진왜란 당시 전투사에 대한 귀중한 정보 제공 뿐 아니라, 그의 생애와 정여립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료를 제공하고 있어 역사적·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



관해군 폐후 후 익사공신첩호는 모두 삭탈(削奪)되고 녹권도 대부분 폐기되어 현재 서너권만 전하고 있는 회귀본이다.

오익창(1557~1635)은 전북 고창출신으로 조선시대 선조와 광해, 인조대의 유학자다.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로 호남의 학식이 높은 선비(大儒)로 알려졌다. /고창=김영석 기자

## 도내 수출 성장세 전환가능성

### 비중 높은 자동차·부품서 세계수요 회복으로 증가할 듯

올해 전북의 수출은 미국 등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수요 회복과 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서 발표한 '2016년 전북도 무역동향 및 2017년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북의 수출은 전년 대비 20.9% 감소한 63억 달러, 수입은 9.1% 감소한 39억 달러, 무역수지는 24억 달러 흑자로 마감해 수출 감소폭이 특히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의 1위,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전

년 대비 각각 35.2, 16.2% 감소하며 전체 수출 증가율을 끌어내린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해 수출 2위 품목이었던 '정밀화학 원료'의 실적이 타 지역으로 이전되면서 나타난 감소세가 품목 기준으로 볼 때 2016년 전북 지역 수출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전북의 수출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66억 달러, 수입은 3.8% 증가한 40억 달러로 6년 연속 무역 흑자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전체 수출 중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의 경우 세계수요 회복 및 한국 GM의 신형모델 양산 개시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인재용 기자